

# 전남도, 친환경농업 견인한 유기농 명인 5명 선정

### 민달팽이 트랩 개발 등 유기농법 보유 소비자 선호 안전 먹거리 공급 앞장

전남도가 독창적 유기농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흥군 공슬기 씨 등 5명을 '2022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했다. 작목별로 무화과와 고흥군 공슬기씨, 녹차 보성군 최창돈씨, 오디 해남군 박성관씨, 밀 함평군 오관수씨, 유자 완도군 강상목씨가 '유기농 명인' 칭호를 획득했다.



고흥 공슬기씨



보성 최창돈씨



해남 박성관씨



함평 오관수씨



완도 강상목씨

를 것"이라는 주변의 비웃음 속에 "유기농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유기농업을 이어왔다.

오디 유기농 명인 박성관씨는 후계영농인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기농업에 전념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고, 쉬운 유기농업에 대한 고민 끝에 저비용 민달팽이 트랩을 개발해 경영비를 절감했다. 밀 유기농 명인 오관수씨는 함평 월송마을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 종자 선택부터 수확 후 관리, 수매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마을 법인의 조직화를 이뤄냈고, 법인 주도 아이쿱(ICOOP) 생협 납품 등 안정적 판매-유통 체계를 확립했다.

유자 유기농 명인 강상목씨는 본인 과원을 찾는 사람이 안전한 먹거리와 마음에 휴식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자를 재배한다. 유자 가공품 등의 품질향상

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했고, 다수의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유기농 명인은 다양한 품목을 재배한 경험에서 비롯한 독창적 농법을 주변 농가에 공유하는 등 유기농업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을 이끈 '전남 유기농 명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정책 발굴 등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총 26명의 유기농 명인을 지정했으나, 고령으로 인한 이능 등으로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유기농 명인 5명과 함께 유기농 명인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300명 대상 유기농 전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남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특화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10일 조사연구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수사례집 발간은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체적 서식 자료를 보급하여 우수한 광주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제공)

# 남부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 개정 홍보



광주남부경찰(서장 양우천) 교통안전과는 4일 효덕교차로주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해 홍보와 함께 이용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주의의를 당부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부경찰 제공)

# '코스모스 피어있는길' 작곡 김강섭 별세...가요무대 20년 지휘



김강섭 작곡가

KBS 관현악단장을 맡아 1960~1970년대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고 KBS 장수 가요 프로그램 '가요무대'를 20년 이끈 연주자 겸 작곡가 김강섭(사진)이 9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에 따르면 고인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복무하고 육군교향악단에서 활동하며 위문공연과 미군 클럽 무대에 섰다.

전역 이후에는 김광수 악단과 김호익 악단 등을 거치며 팝 피아니스트 명성을 쌓았다.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1961년 KBS에 경음악단장(이후 KBS 관현악단)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를 계기

로 1964년 최수자가 부른 라디오 연속극 '나무타기'의 주제를 작곡했고, 이를 시작으로 1960~1970년대 작곡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그는 이후 '불나비'(김상국·1965),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김상희·1967), '빨간 선인장'(김상희·1969), '그 얼굴에 햇살을'(이용복·1969), '꿈나무'(유리시스터즈·1971), '흰 구름 가는 길'(나훈아·1971), '파초의 꿈'(문정선·1972) 등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 한기총, 공동회장에 조경삼 목사 등 14명 임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공동회장에 조경삼 목사(예장개혁) 등 14명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기총은 공동부회장에 김영면 목사(합동보수망원) 등 16명을 임명했고, 서기에는 이용은 목사(합동개혁총회)를 임명했다. 총무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상임위원장은 김용도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를 비롯해 24명을 임명했고, 윤리위원장 등 16개 상임위원장은 공석으로 뒀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M드라마 나랏님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⑪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황금가면 스페셜(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30 고향이 보인다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빅마우스(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오늘의 웹툰(재)
⑬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자본주의 학교(재)	50 2시 뉴스 외전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2022 육상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40 꽃점 영화가 좋다(재)		00 뉴스브리핑
⑮	10 방과 후 초능력 40 영 앤 리치(재) 45 디노 파워즈	00 KBS 뉴스타임 10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본 좋은 날(재)	
⑯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생방송 현장 리포트(날) 스페셜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뽀뽀뽀 포크가족 15 니니 뭐하니?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아머드 사우루스 2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20 KBC뉴스와이드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황금가면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흥김동진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5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00 다큐 M	00 판타스틱 패밀리-DNA 싱어
㉒	00 광복절 기획 다큐 인사이드 50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연중 라이브	20 문화콘서트 난장	
㉔	10 예설의 전당(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30 광주MBC 보드 스페셜 40 4부작 시골스릴러 멧돼지사냥(재)	00 나이트라인 30 네모세모(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6:40 당동당 유치원(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7:00 두다다쿵	11:20 세계테마기행	17:30 하프와 친구들(재)
07:15 티시태시	12:00 EBS 뉴스 12	17:45 그린조끼 구조대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2:10 부모 클래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18: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재)
08:00 당동당 유치원	13:50 명의	19:00 몬카트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4:45 엄마를 찾지마	19:30 한국의 둘레길
08:35 하프와 친구들	15:35 안전채널e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드 다이어리
08:50 방귀대장 뽕뽕이	15:40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9:05 빅 블루	15:50 할 수 있다고 2	21:30 한국기행
0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이것이 야생이다 3
09:30 어떻게 만들까	16:15 페퍼 피그	22: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09:40 우리집 유치원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1일(음 7월 14일 己亥)

<p>36년생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익이 없도다. 48년생 급전에 짐착하다 보면 더 큰 의미를 잃게 됨을 감안하라. 60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을 것이다. 72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참작하라. 84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96년생 똑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1, 75</p>	<p>42년생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라. 54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썩트리라. 66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78년생 지금 착수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리라. 90년생 경제 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02년생 순리대로 풀어 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43, 81</p>
<p>37년생 당래 문제의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느니라. 49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61년생 귀한 육이 진흙 속에 박혀 있으니 알아보는 이가 없도다. 73년생 함께 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85년생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익이 없도다. 97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54</p>	<p>43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55년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류해야만 한다. 67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79년생 알면서도 때때로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91년생 판세가 이처럼 흘러가게 된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느니라. 03년생 짐중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73</p>
<p>38년생 명분만으로는 공허하므로 실속도 찾아라. 50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62년생 한 가지 일에 만 일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4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86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7, 77</p>	<p>44년생 성곡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56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68년생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80년생 구태의연한에서 벗어나야 한다. 92년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04년생 의지하기에 충분한 보수가 될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3, 86</p>
<p>39년생 소중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 51년생 잔존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63년생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이니라. 75년생 바로 그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바이다. 87년생 방심하다가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느니라. 99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67</p>	<p>33년생 얼핏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45년생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느니라. 57년생 풍전등화의 위험에 놓여 있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정황이다. 69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81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코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3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산처럼 봄날이 찾아드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21, 80</p>
<p>40년생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52년생 아직은 때가 이르니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서는 생사적이다. 64년생 급변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라. 76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88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0년생 급은 것은 바로 과거. 행운의 숫자 : 46, 95</p>	<p>34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겸손하지 않는다면 충동이 앞서면서 심기가 불편하리라. 58년생 소득은 있지만 알찬 결과물은 아니다. 70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82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다. 94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9, 64</p>
<p>41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익이다. 53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65년생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7년생 향상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89년생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01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5, 57</p>	<p>35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47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라. 59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처하라. 71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83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95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29, 74</p>